



승강제의 성공은 2부 리그가 얼마나 잘 정착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도·시민구단들이 강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막연한 공포심을 버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민 구단 강원과 시민구단 대구의 경기 모습. 스포츠동아DB

2부리그로 떨어지면 팀이 망한다고?

승강제 도입 앞둔 K리그의 2부리그 공포증... 그 오해와 진실 사이

J리그 제프UTD 강등 후 지역 마케팅 관중 2배이상 늘어 재도약 발판 계기 도시민구단 "안된다" 공포심 버려야

작년 강등 팀은 반드시 생긴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일본 J리그가 좋은 예다.

●일본의 성공사례

J리그 최고 인기구단은 우라와 레드삭스다. 마케팅 부문에서 늘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 밀착형 마케팅으로 가장 성공한 구단은 제프 유니티이다. 이치하라 지바다.

제프 유니티는 J리그 최고 전형을 자랑한다. 1993년 J리그 출범 후 한 번도 2부 리그에 강등되지 않았다. 2009년 꼴찌로 떨어졌다. 충격은 컸다. 메인스폰서가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구단 창단 후 최대 위기였다.

2부로 내려간 제프 유니티는 지역 마케팅에 집중했다. 구단 사무국 내에 홈 타운 추진실을 뒀다. 유명 선수가 은퇴하면 반드시

시 이 부서에서 2~3년 근무해야 한다. 지역 행사나 마라톤 대회에 감독,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연구지역 내 198개의 유소년 클럽이 있는데 선수단 무료 클리닉 횟수가 1년에 210일이었다. 모든 유소년 클럽을 한 번 이상 순회했다.

1부 리그보다 상대적으로 경기 수가 적어 여유 있는 시간을 지역 활동에 할애했다. 1부 리그에서 늘 하위권을 맴돌다가 2부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자 지역민들의 자부심도 커졌다. 효과는 놀라웠다. 1부 리그 시절 평균 6000명인 관중이 2부 리그에서 1만3000명으로 늘었다.

삿포로 콘사도레도 독특한 전략으로 살아 남았다. 삿포로는 2003년, 향후 5년 간 1부 리그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스타급 선수 영입에 쓰는 비용을 줄이고 23세 이하 유소년 선수들로 5~6년 팀을 꾸려 리빌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대신 훗카이도의

212개 지역 축구교실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주력했다. 지역민들에게 사랑 받는 팀으로 거듭났다. 2008년 1부 리그에 오르며 인기와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생각을 바꿔라

일본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할 부분이 많다. 연맹 관계자는 "도시민구단의 경우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보다 지역민들에게 체육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를 축구단으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구단 고위층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승강제를 시작도 하기 전에 2부 리그 탈락이 실패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 강등 시 팀 해체를 운운할 게 아니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4+3+1...2부리그 8개팀 될 듯

(강등팀) (실업팀) (경철청)

1부리그팀, 2부에 B팀 운영 가능성도

승강제 실시 이후 2부 리그는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 적정한 2부 리그 팀 수는 얼마일까. 현재까지는 1부 리그 12개, 2부 리그 8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16개 팀 중 상주상무를 포함해 2부 리그로 강등되는 4팀과 경찰청 그리고 현재 실업

리그에 속해있는 팀 중 승격 의지를 가진 구단이 3팀 정도 된다는 계산이다. 실업연맹 관계자도 "3팀 정도는 1부 리그에 올라갈 생각을 갖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프로연맹이 다양한 복안을 갖고 준비 중이다. 일단 곧바로 2부 리그에 뛰어드는 팀이 있다. 몇몇 지

에서 이와 관련해 프로연맹에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부 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뒤 1부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이다.

1부 리그 팀이 2부 리그에 위성 구단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좋은 롤 모델이다.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는 1부 리그에 참여하는 A팀과 2부 리그에서 뛰는 B팀이 있다. B팀은 2부 리그에서 승격 요건을 갖춰도 1부 리그로 올라오지 않는다. 유망주들이 경기 경험을 쌓는 게 주 목적이다. 리오넬 메시도 B팀을 거쳤다. 현재 엔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비야레알 역시 하부 팀인 B팀을 두고 있다.

K리그는 승강제 실시와 함께 구단들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R리그(2군 리그)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유망주들의 갈 곳이 줄어들고 축구계 실업률도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위성 구단을 운영하면 R리그 폐지에 따른 단점이 일정 부분 보완된다. 모 구단 관계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형 승강 모델에 적합한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택식 기자



FC서울맨 김현성-정승용 "훌쩍 커서 돌아왔네, 하하"

기량 급성장 후 임대 복귀...맹활약 기대

FC서울은 2012시즌 임대 복귀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11시즌 대구와 경남에 각각 1년간 임대됐던 김현성(23)과 정승용(21)은 3월부터 시작된 팀 훈련에 참가했다. 이들은 임대생활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서울은 지난 시즌 데얀과 몰리나 등 용병 공격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이 때문에 데얀과 몰리나가 침묵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2010시즌 서울이 K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몫을 했던 공격수 정조국(남시)이 해외로 떠난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다. 서울은 올 시즌 김현성과 정승용이 정조국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성은 대구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지난시즌 8골을 넣었고, 올림피아대표로도 발탁됐다. 186cm의 장신으로 제공권 장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승용은 부상 등으로 5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2011 FIFA U-20 월드컵에 참가했을 정도로 재능을 가진 유망주다.

서울 관계자는 "임대를 떠났던 김현성과 정승용이 몰라보게 성장해 돌아왔다. 이번 시즌 팀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단은 유망주를 일찍 발굴해 임대 등을 통해 1군 선수로 길러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김현성과 정승용이 첫 번째 성공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tyong11

지동원 "몸만 풀었네"

위건전 후반기 교체로 나와 단 4분만 뛰어



지동원(21·선덜랜드·사진)이 아쉽게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동원은 4일(한국시간) 영국 국 위건 DW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2012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위건 애슬레틱과 원정경기에서 후반 44분 교체로 출전해 추가시간 포함 4분여를 뛰는데 그쳤다. 19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교체로 나서 결승골을 넣었던 지동원은 2경기 연속 골을 사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선덜랜드는 맨체스터 시티전 극적인 승리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위건을 4-1로 대파하며 2연승을 내달렸다. 선덜랜드는 마틴 오닐 감독을 영입한 이후 3승2패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기존 주전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어 지동원은 계속해서 벤치에서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최용석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유소년 장학금 지급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는 4일 축구 꿈나무를 위한 장학금 2천만원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전달했다. K리그의 유소년 축구 발전 프로그램 공식 후원사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해 K리그 30라운드 전 경기에서 나온 655골에 한 골당 3만 원씩을 적립, 유소년 축구 장학금을 마련했다. 이 장학금은 연맹을 통해 각 구단이 추천한 16개 구단 산하 유소년클럽 소속 선수 90명에게 지급된다.

●팀 분위기 쇄신해 후반기엔 발전

황연주는 후반기에는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리고 싶다고 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승이 목표다. 지금은 어렵지만 선수들이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또 새 용병이 들어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자배구는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내 무릎은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 상태. 완치할 수는 없고, 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챙기는 것에 급급했던 것 같다. 후배들을 잘 끌고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후배들을 챙기며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원성원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황연주는 무릎과 발목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후반기엔 후배들과 함께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동아DB

독종!... "무릎 부상 따위는 날 막을 수 없지!"

■현대건설 황연주의 아름다운 투혼

물리치료·아이싱 등 고된 시즌의 연속 "어려운 성장의 계기"...2연패 향해 GO!

"저 결혼할 때 휠체어나 사주세요."

현대건설의 주포 황연주(25·라이트)가 농담 삼아 프론트에 건넨 말이다. 황연주는 무릎과 발목 부상을 견디며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배구판권 커뮤니티에는 현대건설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아이싱을 하고 절뚝이며 코트를 빠져나오는 황연주가 안쓰럽다는 글이 빠짐없이 올라온다.

황연주는 여자배구월드컵에 참가하느라 체력이 소진됐고, 설상가상으로 용병 리빙스톤이 퇴출되면서 팀 공격을 전담해야 했다.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팀 성적을 보면 쉬고 싶어도 쉬 수가 없었다.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 현대건설은 용병 없이 경기를 치르면서 전반기를 마친 현재 7승 8패(승점 19점)로 리그 5위다.

●부상도 농담으로 웃어넘기며 고군분투

황연주는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부상이 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고, 농담 삼아 얘기하며 웃어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팀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황연주의 공격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국내 선수들 가운데 후위공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라이트인 황연주는 올 시즌에도 후위 공격 부문에서 국내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톱 10(6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격종합 부문에서도 7위다. 물론 지난해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에서 MVP를 휩쓸 때만큼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다. 하지만 황연주는 "지난해와 비교해 공격력이 특별히 떨어진 것은 아니다. 확실한 한 방으로 흐름을 끊어주는 용병 없이 경기를 계속 하다보니 안 좋은 2단 불이 내게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컨디션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